

# 올해 첫 다양성 영화 '천화' 광주서 시사회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시네마 광주점에서 영화 '천화'의 시사회가 열렸다.

23년 만의 첫 주연 이일화 파격 연기  
이장호아카데미 남민우·홍석현 출연  
독특한 내러티브·감각적 연출 묘미

2018년 한국 다양성 영화로 첫 포문을 연 영화 '천화'가 1월 25일 개봉한 가운데 '천화'의 출연진들이 광주를 찾아 관객과의 만남을 가져 눈길을 모았다. 영화 '천화'(감독 민병국/ 제작 맑은시네마, 키스톤필름)의 언론배급시사회가 지난 25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롯데시네마 광주점에서 열렸다. 언론배급시사회에서는 영화를 연출한 민병국 감독과 함께 배우 이일화, 하용수, 이혜정, 남민우, 홍석현이 참석해 영화와 제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무대인사에는 '천화'의 배우들 외에도 이장호 감독이 한국 다양성 영화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배우 이일화는 이날 무대인사가 끝나고 시사회에 참석한 연기자를 꿈꾸는 학생들과 사진도 찍으며 훈훈한 시간을 보내 주목을 받았다. '천화'는 한 치매노인(하용수)의 인생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일화)과 그녀의 곁에 선 한 남자(양동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인간관계를 매개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꿈과 현실이라는 이미지로 풀어낸다. 아름다움과 고립감이 공존하는 제주를 배경으로 삶과 죽음, 거짓과 진실, 과거와 현재, 인



영화 '천화' 주연을 맡은 배우 이일화.

물과 인물들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다. 독특한 내러티브와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색다른 묘미를 펼쳐낸다. 여기에 이일화, 양동근 외에도 하용수, 이혜정, 정나온 등 신선한 배우들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한다. 특히 극중 '서영'역에 출연한 배우 남민우와 의사역의 홍석현은 광주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있는 이장호 영화아카데미를 통해 진행된 영화 오디션에서 발탁돼 영화에 참여하게 됐다. 영화 '가능한 변화들'로 제17회 도쿄국제영화제 최우수 아시아 영화상을 수상한 후 13년 만에 '천화'를 선보인 민병국 감독은 "'천화'는 '고승이 죽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다"며 "영어 제목은 'Living-Being'이다. 생명이라는 뜻이다. 죽음과 삶이

상충한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딱히 지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로 제목을 지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제주도라는 곳이 처음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하지만, 비행기로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임에도 격리돼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아름다움과 병치레 고립되는 사건들이 제주도와 어울린다고 생각해 영화의 배경으로 삼게 됐다"고 전했다. 데뷔 23년 만에 여주인공으로 스크린에 등장한 이일화는 "정나온 배우가 언젠가 시나리오를 추천해줘서 일게 됐는데 작품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참여하게 됐다"며 "데뷔 23년 만에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고 변화되는 모습 뿐 아니라 색다른 매력을 지닌 배우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문기자 ej6621@

## 문학적 흐름 대변...42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발간

'이상문학상 작품집'(문학사상사)은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는 남다른 책이다. 한 해 동안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 가운데 주목받은 소설을 엄선해 엮은 작품집으로 현대 소설의 흐름을 대변하는 소설 미학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탄탄한 서사와 실험적인 문체로 등장 인물들의 시점을 교차하는 진행방식을 선보인 손홍규 작가의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손 작가는 정음 출신으로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오영수문학상, 채만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제42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사진>에는 손홍규의 대상 수상작을 비롯해 우리 시대 대표 작가들의 우수작들도 수록돼 있다. 이상문학상 심사위원 5인(권영민, 권택영, 김성곤, 윤후명, 정과리)은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는 장편소설이 추구하는 서사의 역사성과 단편소설에서 강조하는 상황성을 절묘하게 조합하고 있는 점에서 중편다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는 실패한 인간들의 상실감과 어두운 과거를 다루고 있다. 불한당들이 모여 있는 술집에 검은 상복을 입고 상장을 팔에 찬 젊은 이가 등장한다. 그 청년의 모습에서 불한당들은 자

신들이 이루지 못한 젊은 시절의 자기 이미지와, 자기들이 상실한 것의 상징을 본다. 또한 책에는 손작가의 자선 대표작 '정음에서 울다'와 문학적 자서전, 작가론, 작품론과 더불어 우수상에 선정된 구병모('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방현희('내 마지막 공랭식 포레'), 정지아('존재의 증명'), 정찬('새의 시선'), 조해진('파충하는 밤')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심사평도 담아 작품 선정의 이유를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피아니스트 조성진(사진)이 '꿈의 무대'로 통하는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 재초청받았다. 28일 카네기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성진은 내년 1월 22일(현지시간) 카네기홀 메인홀(아직 스티븐 오티토리움)에서 독주회를 연다. 작년 2월 같은 공연장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이후 2년 만의 재초청 무대다. 카네기홀은 이번 공연에 대해 "카네기홀 데뷔 무대에서 기록한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레퍼토리로 돌아온다"며 "그의 '명쾌하면서도 반짝이는 사운드'(파이널셀 타임스)는 그가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지를 상기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연주회에서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드뷔시의 '영상' 1집 및 전주곡 1권 중 4곡,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연주한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로서 쇼팽을 메인 레퍼토리로 연주했던 2년 전 데뷔 무대와는 달리 쇼팽 없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레퍼토리 확장에

대한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더 많은 레퍼토리를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몇십 년간은 더 피아니스트를 할 것 같은데 쇼팽만 치기에는 아까울 것 같다. 세상에 좋은 곡이 너무도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유약평론가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작곡가 국적도 다 다르고, 작품의 사조도 달라 곡마다 연주 스타일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자신감이 돋보이는 참신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 "꿈"으로 꿈꿨던 카네기홀 데뷔와 베를린 필 협연 무대를 작년 모두 이뤄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베를린 필과의 서울 협연 무대를 앞두고서 남은 꿈을 묻는 말에 "재초청을 받는 게 앞으로의 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성진 공연은 카네기홀의 기획 시리즈 '김반 비르투오소(명연주자)' 중 하나다. 당대 최고의 피아노 거장으로 꼽히는 안드라스 슈프, 마우리치오 폴리니, 예프게니 키신 등도 이 시리즈에 초청됐다. /연합뉴스

## 예술·언어의 탄생 현장엔 '기억'이 있었다

미나토 지히로 '창조적 기억'

"기억은 뇌 연구 분야의 최대 수수께끼이다. 기억의 메커니즘을 알고서는 사고나 판단, 운동 메커니즘도 알 수 없다. 또한 의식을 탐구하는 데에도 기억의 해명이 필요하다.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억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억을 각인의 '집적'이 아닌 지속적인 '생성'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이가 있다. 다시 말해 기억의 메커니즘은 동적으로 구축된다는 것이다. 다마시우스대학 정보디자인학과 미나토 지히로 교수는 신간 '창조적 기억'(사진)에서 회상과 추억, 상기가 갖는 놀라운 창조력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예술의 현장, 역사인식, 언어현황을 중형무전 가로지르면서 끝없는 구축으로서의 '기억'을 투시한다. 특히 저자는 기억이 역동적인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에 착안 신경 생리학 연구나 기억술의 전통을 토대로 예술 제작과 기억의 관

계를 분석한다. 자코메티의 조각, 샤를 마통의 회화, 빌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를 인용하면서 기억이 '집적'이보다 '생성'의 산물임을 파고든다. 책은 모두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기억의 활동을 신경세포 차원에서 개관한다. 2장은 기억이 구체적인 제작활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관찰한다. 3장은 20세기 인간 기억의 존재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진'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인간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기억의 생성론 입장에서 분석한다. 저자는 언어적 다양성이 직면한 위기적 상황을 관찰하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상기하는 힘'에서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한편 책을 번역한 이들은 김경주 동산대 공연 전시기획학과 교수와 이종욱 일본근대문학 연구자다. 김 교수는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미술 전공)했으며 12회의 개인전과 100여 회의 기획전을 펼쳤다. '화문집-화창한 날의 상차', '프랙탈로부터 미의 추출' 등을 펴냈다. 이 연구자는 전남대 일문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간사이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번역서로 '일본전후사 1945-2005', '생각하는 피부' 등이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